

20세기 하반기의 미 신문 1면 보도에 대한 다양성 분석

뉴스 토픽과 정보원의 분포를 중심으로*

심 훈**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본 논문은 '다양성'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입각해 뉴스 기사 선별 및 취재 경로와 관련한 미 신문의 뉴스 제작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진행돼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뉴스 토픽'과 '정보원'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지난 50년간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3대 유력 일간지의 1면 기사를 분석, 연대기적인 가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미 신문에서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정보원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산업체발 정보원의 등장은 점차 빈번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뉴스 주제의 분포에 있어서는 사건, 사고 기사의 감소와 군사, 안보 기사의 퇴조 속에, 경제, 건강, 교육 등과 같은 주제가 점차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인기 주제였던 빈곤, 노동, 소수자, 사회 갈등 등과 같은 토픽들은 시대를 거듭해도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다양성, 사회적 책임 이론, 뉴스 토픽, 정보원.

1. 문제 제기

지난 반세기 동안 미 신문 산업은 미증유의 변화를 겪었다. 외부적으로는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의 200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himh@hallym.ac.kr

네트워크 TV를 위시해 케이블, 위성 방송 등과 같은 전파 매체들과 뉴스 시장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뉴스 제작 및 보도와 관련해 사회 변혁과 변동에 따른 수많은 도전과 실험들을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일간지 구독률¹⁾은 신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까지 등장하였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 미디어가 생산하는 뉴스의 제작 방식 및 특성 역시 과거와는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위별 뉴스 기사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 관한 이야기가 개인적 차원의 뉴스를 대체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론인들의 시각이 갈수록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Barnhurst & Mutz, 1997; Steel & Barnhurst, 1996). 반면 기사의 선별 및 취재 경로 등과 같은 뉴스 생산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진행돼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빈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 신문의 보도 행태에 관한 통시적 연구들이 많은 경우 기사의 전개 방법 및 문체 변화 등과 같은 내용 분석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e.g., Schudson, 1982).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1)에 따르면, 경쟁은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변화와 더불어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언론 매체보다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방송사간의 차별화 전략으로 뉴스 아이탬의 연성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Dahlgren, 1995; 한진만·설진아, 2001, 339쪽 재인용), 사적 정보원의 인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그러하다(Alezander, 1995; Sparks, 1995).

그렇다면, 신문의 경우에는 뉴스 생산 방식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진행돼 왔을까? 이제부터 본고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입각해 뉴스 토픽 선정 및 정보원 활용과 관련한 미 신문의 뉴스 제작 방식에는 어떤

1) 미 일간 신문의 구독률은 지난 1970년의 77.6%에서 2003년에는 54.1%로 23.5% 포인트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발행 부수도 11%가 줄어들었다(2004, NAA).

움직임이 지속돼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뉴스를 취급하는 매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언론사간의 취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시적 차원에서 국내 신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뉴스 제작에 관한 잠재적, 점진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 방송사간의 뉴스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미국 신문의 뉴스 토픽 선정 및 정보원 활용 방식에 관한 통시적 연구는 한국 언론학계에서도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만 하다.

2. 이론적 논의

1) 언론 보도의 다양성

다양성에 관한 언론적 고찰은 그 역사적 기원을 18세기 중엽의 존 스튜어트 밀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Voakes et al., 1996).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밀은 자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사상의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사고의 교환이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발견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러한 밀의 사상은 이후 미 언론이 다양한 계층의 시각과 입장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Altschull, 1990/1996).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는 미 언론의 상업화와 체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발표된 허친스(Hutchins)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 언론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한정된 사회 현상만을 보도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 책임적인 차원에서 뉴스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 마찬가지로 1960년대의 미 대도시들을 휩쓸었던 폭동과 불안정에

관한 원인 조사에 나섰던 커너(Kerner) 위원회 역시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 대한 미 언론의 배타적 성향이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며 미 언론이 백인 사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1968). 이들 보고서는 이후 언론 윤리,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미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재단하는 철학적 근거이자 실증적 자료로 자주 활용되곤 했다(e.g., Lambeth et al., 1998; Valenzuela, 1999).

그러나 언론 보도의 다양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기에는 그다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연구 대상 및 결론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스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언론 보도의 다양성은 기사의 분량, 기사 장르, 형식(Hansen, 1991) 등을 기준으로 재단되기도 하며, 사건 발생 및 기사 작성 장소 등을 기준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Martin, 1988; Whitney et al., 1989). 반면, 일부 학자들에게 있어 언론 보도의 다양성은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의 이념적인 성향의 다양성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erman, 1985; Herman & Chomsky, 1988; McChesney, 1999). 이와 함께, 기자들의 성적(Weaver & Wilhoit, 1992), 인종적(Haws, 1991), 계급적 다양성(Hart, 1976; Hess, 1981)이 언론 보도 내용의 다양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언론 종사자들의 인적 구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언론사가 생산, 취급하는 뉴스의 내용으로 한정짓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구성원의 다양성 또는 이데올로기의 편향성 등과 관련해 이미 많은 결과물들을 내놓은 반면, 정작 미디어가 생산하는 뉴스의 총체적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념적 성향과 결부된 뉴스 보도 연구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정치적 갈등, 국제적 분류, 인종 차별 등과 같은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보편적 차원에서 뉴스 전반에 걸친 다양성 분석은 주로 뉴스 토픽과 기사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

다(Whitney et al., 1989). 그러나 이에 관한 미 언론학계의 관심 역시 80년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아직까지 해당 분야의 지식 축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엄밀히 말해, 다양성은 객관성과 함께 뉴스가 구현해야 하는 핵심 명제 가운데 하나이다(McQuail, 1994). 이는 언론이 이념과 가치관의 개입을 배제한 채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함은 물론, 온갖 종류의 사회 현상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보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배현석, 2002). 이 같은 점에 비취본다면, 분명 뉴스 토픽의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언론 보도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의 토픽에 관한 다양성 조사는 언론의 뉴스 주제에 대한 기호 또는 편향성을 밝히는 데 유용하며, 결국 언론이 공공의 전달자(common carrier)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모습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취재 범위와 대상을 고루 분산해야 한다는 허친스 위원회의 바람과도 맞아 떨어진다.

뉴스 토픽은 분명히 최근 들어 한미 양국의 언론학계에서 조금씩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뉴스 토픽에 대한 다양성 분석 연구는 주로 전파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연구 논문의 대부분은 언론사간의 경쟁 유무 관계 및 경쟁 강도에 따른 뉴스 토픽의 분포와 구성 비율 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e.g., Carroll et al., 1997; Bae, 2000; Hudson, 1992; 배현석, 2002). 안타까운 사실은 뉴스 토픽의 다양성 조사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여러 매체간의 뉴스를 동시대적으로 비교하는데 머물고 있어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뉴스 토픽의 분포에 대한 움직임을 관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쇄 매체의 경우 — 특히 신문에 있어서는 — 관련 정보가 일천한 실정이다.

뉴스 보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은 다양성 분석이 어느 한 가지의 영역 — 이를테면 뉴스 토픽 — 에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배현석, 2002). 예를 들어, 같은 주제, 같은 이슈

의 기사라 할지라도 기자의 시각이나 정보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의 제목과 유형, 주제만을 놓고 언론사간 뉴스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방식은 기사 내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내용까지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보원의 다양성에 관한 분석은 바로 ‘어떤 목소리를 통해 제공된 이야기인가’라는 취재 경로에 대한 고찰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다양한 정보원이 등장하는지, 정보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유형의 직업에 속한 사람들인지, 이들에게 할애된 지면과 화면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결국 누구의 목소리가 얼마나 뉴스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도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분쟁의 경우, 사회 책임적인 언론은 정부 당국자는 물론, 분쟁 당사자 및 일반 시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시각²⁾에서 그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Gans, 1979). 제노위츠(Janowitz, 1975)에 따르면, 현실이라는 개념을 구축하는데 있어 그와 같은 방식들은 제각기 다른 각도에서의 현실 묘사에 일조하게 된다. 정보원 분석이 뉴스의 다양성을 재단하는데 있어 지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들어 정보원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소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70년대 초 시갈(Sigal, 1973)이 처음으로 미 언론의 정보원 동향을 연구한 이후 미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재단하는 수단으로 한동안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분야이다(Voakes et al., 1996). 이에 본고에서는 미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 관한 보다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뉴스 제작에 있어 ‘토픽 선정’ 및 ‘정보원 활용’의 두 분야에서 미 신문은 지난 50년간 어떠한 가치 변화를 진행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뉴스 주제 및 정보원 연구와 관련돼 이제껏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연구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2) 간스(Gans, 1979)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을 ‘다각적 접근’(multi-perspectival approaches)라고 표현하고 있다.

2) 뉴스 토픽의 다양성에 관한 문헌 연구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주제의 뉴스 공급은 사회 및 구성원들의 여러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을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 있어 뉴스의 특정 주제에 대한 편중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버코위츠(Berkowitz, 1990)와 맥클레란(McClellan, 1997) 등이 언급한 것처럼 미 언론은 지나치게 많은 지면과 화면을 정치, 정부, 범죄 및 법원 등과 같은 소수의 주제에 집중해 왔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램베쓰(Lambeth, 1998)는 미 언론이 빈민층, 노동자 계급, 유색 인종, 실직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에 대한 상대적 관심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적어도 TV의 경우, 최근 들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 뉴스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보다 건강, 가족 또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취급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Bae, 2000). 지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 뉴스 6,000건 이상을 분석한 PEJ(Th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전통적인 뉴스 토픽인 정부 관련 기사와 국제 뉴스는 3/1로 줄어든 반면, 개인의 건강 문제, 라이프스타일, 오락 관련 기사들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osenstiel et al., 2000).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토픽 분포의 변화가 비단 어느 한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방송사간에는 뉴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제 선정과 관련된 분포 비율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e.g., Stempel, 1983; Riffe et al., 1986). 이는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본질 또는 뉴스 가치에 대한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타 방송사를 불문하고 뉴스 주제가 중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Bae, 2000). 예를 들어, 리프와 그의 동료들(Riffe et al., 1986)은 1973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대 공중파 네트워크가 보도한 외신 기사 토픽의 유사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토픽의 전반적인 구성과 기사의 길이 및 위치에 있어 세 네트워크 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스템펠(Stempel, 1985)이 3대 네트워크 방송사와 PBS, CNN 등의 뉴스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히 네트워크 방송시간의 주제 선정 순위에는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뉴스의 토픽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동시대적으로 방송 매체간의 뉴스 토픽에 있어 분포 상에 별 차이가 없으며, 통시적으로는 정치 등과 같은 전통적인 토픽의 약세와 보건, 건강 등과 같은 대체 토픽의 강세를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미약한 실정인어서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단지 린드보르그와 스톤(Lindborg & Stone, 1975)이 지난 1950년과 1970년의 뉴욕 타임지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뉴스 토픽의 분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정보원의 다양성에 관한 문헌 연구

일반적으로 뉴스 정보원은 뉴스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e.g. Berkowitz & Terkeurst, 1999). 이는 같은 사안일지라도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사의 성격이 판이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이동근, 2004). 돌이켜 보면, Sigal(1973)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1면 기사 분석을 통해 정부 출입처에 대한 기자들의 높은 의존도를 밝힌 이후, 정보원 분석은 미디어의 보도 성향 및 뉴스 기사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언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e.g., Brown et al., 1987; Whitney et al., 1989; Lacy & Coulson, 2000). 현재 이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밝혀진 사실들로는 정부 관리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미국 언론의 의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언론학자인 할린(Hallin, 1996)은 미국의 언론 기관들이 “정치적인 독립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취재 활동에 있어 정부 관리들과 “특별한 직업관계”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11쪽). 실제로 버코위츠(Berkowitz, 1987)는 정보원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 TV 뉴스와 지역 TV 뉴스에서 공직자들과 각종 단체의 간부 임원들이 의제 구축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마찬가지로 휘트니와 그의 동료들(Whitney et al., 1989)은 네트워크 TV의 저녁 뉴스에서 조사 대상자의 3/4에 달하는 정보원이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그 중 1/3 이상이 정부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9·11테러와 관련해 미국 네트워크 TV 및 신문사들의 보도 행태를 비교 분석했던 리와 아이자드(Li & Izard, 2003)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정부 출입처에 대한 정보 의존도는 신문이 40%에 달해 18%에 그친 방송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출입처에 대한 신문사의 높은 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보원의 다양성 정도에서는 오히려 신문이 네트워크 방송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리와 아이자드(Li & Izard, 2003)는 매체 특성상 시간적, 물리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방송보다는 신문이 여러 종류의 정보원들을 접촉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껏 정보원에 있어 언론, 특히 신문의 대(對)정부 의존에 관한 통시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 부문에 있어 미 신문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그렇다면 미 신문은 지난 50년간 정보원 및 뉴스 토픽 선정에 있어 어떠한 뉴스 제작 기준의 변화를 보여 왔을까? 본고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미 신문 보도의 다양성에 관한 분석 대상 기간을 20세기 하반기로 정했다. 첫째로는 미 신문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로 20세기 하반기에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50년대 매카시즘을 둘러싼 정치

적인 격변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와 적대보도(adversarial journalism) 등의 발흥을 불러일으켰다(Protest et al., 1991; Weaver, 1975).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인권, 반전 운동 등과 함께 온갖 변혁의 물결이 미국 사회를 뒤덮어 무척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기존 뉴스 제작 방식에 반기를 든 문학보도(literary journalism),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한 정밀보도(precision journalism),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주창 보도(advocacy journalism) 등과 같은 실험적인 운동들이 줄줄이 탄생했다(Culbertson, 1981; Folkerts & Teeter, 1994, Meyer, 1973). 그리고 1980년대에는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구독 및 신뢰 저하 등을 극복하고자 시민들의 지역 및 정치 활동 참여를 북돋는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20세기 후반부는 1947년에 발표된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미 언론의 향방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제시한다. 주지하다시피, 허친스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에 언론 윤리,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미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재단하는 철학적 근거이자 실증적 자료로 자주 활용되곤 했기 때문이다(e.g., Lambeth et al., 1998; Valenzuela, 1999).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미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허친스 위원회의 바람 속에 뉴스 토픽과 정보원 선정에 있어서는 미 신문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반세기에 걸쳐 추적,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지난 반세기 동안의 미 신문의 1면 보도³⁾에 있어 기사의 토픽 분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 본 연구에서 신문의 1면으로 분석 대상으로 한정지은 것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면 분량이 많은 미 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적 한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 지난 반세기 동안의 미 신문의 1면 보도에 있어 기사의 정보 원 분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신문의 기사 분석 자료들은 각각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 등 3개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등 3개에서 수집했다. 기간은 20세기 하반기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1950년부터 출발해서 해당 년대의 굵직한 변화를 포착하기 쉬운 10년 단위로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과 2000년 등 모두 6개년으로 정했다. 그런 다음, 이들 기준 연도에서 해당 신문사의 1주일 치 분량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해당 연도의 1주일 치 신문 기사들은 당해 년도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 모두 7일의 구조화된 주일(constructed week)로, 추출된 요일의 날짜는 세 신문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주일 단위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자칫 특정 사건에 대한 연속적인 기사들이 표본 대상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은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신문사에서 6년간 모두 1주일씩 분량으로 총 18주, 126일에 이르는 기간의 표본이 추출됐다. 한편, 무작위로 추출된 각각의 요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3개 신문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의 경우 월요일로는 7월 15일이 추출되었다면,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모두 7월 15일자 신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1950년도에만 적용됐을 뿐,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의 신문 기사에는 각각 다른 구조화된 요일들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된 구조화된 주는 분석 대상을 통틀어

모두 6개 주로 선정됐다.

분석 대상의 방대함을 실증적으로 연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표본 추출된 신문 내에서 뉴스 기사의 표집 대상 범위를 해당 날짜의 1면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사의 분량이 넘쳐 다른 페이지에 기사의 나머지 부분이 게재되는 경우에도 연구 편의상 표집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을 통해 1면에 실리는 정보원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판단과 함께, 이 같은 방식이 토픽 분류에도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사진, 그래프, 지도, 또는 각종 그림들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단위는 개별 뉴스 기사(news story)로, 편집 제목과 함께 필자명(byline)을 갖추고 있는 기사로 정의됐다. 한편, 추출된 모든 뉴스 기사들은 두 가지 주요 분석 유목, 즉 뉴스 토픽 및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분석됐다. 먼저 뉴스 기사들은 도이취만(Deutschmann, 1959)과 스템펠(Stemple, 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14가지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13가지의 주제 항목에 몇몇 비인기 주제들(빈곤, 노동/노사, 소수자, 사회 갈등)을 별도로 덧붙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기사 주제는 총 17개로 ‘정치/정부’, ‘군/안보’, ‘경제/산업’, ‘범죄/법원’, ‘사건/사고’, ‘재난’, ‘건강/복지’, ‘오락/스포츠’, ‘날씨’, ‘과학’, ‘환경/주택’, ‘교육’, ‘빈곤’, ‘노동/노사’, ‘소수자’, ‘사회 갈등’,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 또는 국제 뉴스를 굳이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부서 또는 정보원 및 취재원의 거주 장소에 따라 토픽을 분류하기보다,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뉴스의 성격에 따른 비중의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때문에 해외 또는 국제 뉴스의 경우도, 주제에 따라 정치, 경제, 군/안보 등의 여타 해당 항목으로 재분류됐다.

이와 함께, 정보원의 유형은 본질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류되는 6개 장르인 ‘정부기관’, ‘기업/산업체’, ‘비영리 공공시설 및 사설 기구’, ‘개인’, ‘기자’ 및 ‘기타’의 6가지로 분류됐다. 정보원의 경우에는 기사 내에서 직접적으로 정보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나 정보원이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에만 코딩을 실시해, 막연한 추측만으로 정보원을 분류하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했다. 정부 기관의 경우, 본고에서는 그 의미를 연방 정부, 또는 주, 지방 정부 및 각각의 의회, 사법부와 함께, 정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 관료, 실무자들과 공무원들로 정의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기구를 통한 정보원은 출입처 등을 통한 기자 회견, 보도 자료 배포, 각종 발표 및 모임, 또는 개별적 인터뷰 등의 것들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 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시설 및 사설 기구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조직, 그룹, 또는 기구와 그 종사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자 자신이 현장에서 사건을 정리, 보고하거나 묘사할 경우에는 기자 자신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개인이란 변호사 및 의사, 또는 과학자를 포함하는 전문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정보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전체 코딩 스킴(coding scheme)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위해 홀치(Holsti)의 공식을 이용했다. 전체 표본 수의 5.6%에 해당하는 48개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코딩 신뢰도는 변인들에 따라 최저 .71 (토픽 유형)에서부터 .91(정보원 유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딩 작업에는 모두 세 명의 코더들이 참여했으며, 코더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보면, 뉴스 토픽의 경우 A와 B간의 신뢰도는 .67, B와 C사이는 .73, C와 A 사이는 .72였으며, 정보원은 A와 B가 .83, B와 C는 .80, C와 A가 각각 .91이었다.

본고에서는 또, 연대기적 분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적 서열 순위를 계산하는 스피어만의 로우(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각각의 해당 년도에 대한 뉴스 토픽 및 정보원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hmann index)를 사용하였다. 허핀달 지수는 경제학이나 매체 경제학에서 기업 집중의 정도를 알아보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의 이니셜을 따 HHI 지수라고도 한다. HHI 지수의 공식은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는 모든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공의 값을 합산한 것이다. 가령, 두 개의 업체가 한 시장을 50대 50의 비율로 독점하는 경우, HHI 값은 50^2+50^2 로 5000이 된다. 만약 5개의 업체가 각각 20% 씩의 비율로 시장을 나누고 있는 경우는 HHI 값이 $20^2+20^2+20^2+20^2+20^2$ 로 2000이 된다. 따라서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질수록 HHI의 값은 증가하며, 시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HHI값은 줄어든다.

본 연구는 기사 토픽과 정보원의 사용에 있어 각각의 유목에 대한 해당 년도의 해당 비율을 각자 자기 제공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으로써 도출되는 HHI 지수를 시대별로 비교해 보았다.

4. 연구결과

표본 추출 결과 최종적으로 뽑힌 뉴스 기사의 건수는 6개년에 걸친 3개 신문사의 1주일분 씩(126일간)으로 모두 996건에 이르렀다. 신문사별로는 뉴욕 타임스가 378개(38.0%)로 기사 수에 있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364개, 36.5%), 시카고 트리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세 신문사의 연도별 평균 기사 건수는, 지난 1950년에는 10.52로 가장 많았으며, 60년 10.48, 70년에는 6.95, 80년 7.5, 90년에는 6.19, 2000년에는 6.24 등으로 1면에 등장하는 기사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 뉴스 토픽의 다양성

첫 번째로 본고에서는 뉴스 토픽의 다양성에 대한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연도별 기사 주제의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 몇몇 주제 간의 순위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예를 들어, 지난 50년간 기사 주제에 있어 부동의 1위

를 고수해온 정치 및 정부 관련 기사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매 조사 년도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미 있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맞물린 1960년, 1980년, 2000년도의 정치 기사 비율이 그 이전 비교 년도의 정치기사 비율을 크게 앞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해에는 전반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치 기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정부 관련 기사와 수위를 다투었던 군사, 안보 주제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축소돼 2000년의 경우, 주제별 순위에서 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세기 후반 들어 구소련과 미국간의 냉전 구도가 와해된데 따른 국제적 긴장 완화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세기 후반부의 경제/산업 기사의 약진은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사실, 산업 기사의 경우, 1960년만 하더라도 전체 1면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10%대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뒤에 언급될 산업체 발 정보원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이 분야의 약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 및 내용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은 사건, 사고 기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복지 및 교육 부문에서의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건, 사고가 보도의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1면의 주제 분포도 점차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50년 전의 비인기 주제였던 빈곤, 노동, 소수자, 사회 갈등 등과 같은 내용들은 해를 거듭해도 제자리를 땀돌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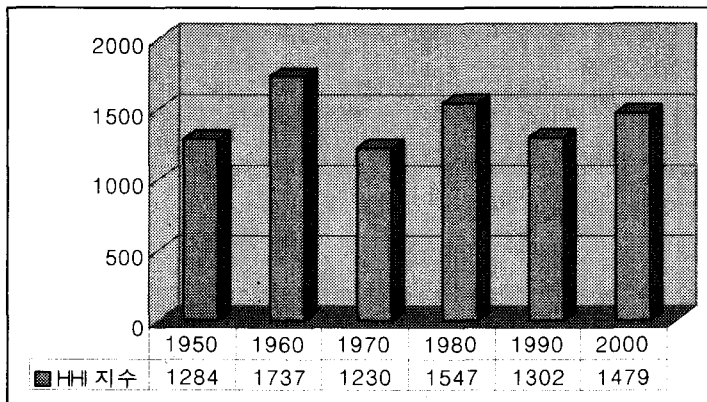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개별적인 특징들도 뉴스 주제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HHI 지수의 시대적 고저와 관련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 다시 말해, 정보원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HHI 지수의 연도별 통계적인 분석 결과, 스피어맨 상관계수는 .004, $p = .994$ 로 나타나 정보원에 대한 HH 수치 변화는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 지난 50년간 3사의 신문 1면에 나타난 뉴스 토픽의 비율

주제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스피어맨 상관계수
정치/정부	17.6(%)	33.2	18.5	26.4	21.7	27.5	.205
군/안보	16.7	8.6	17.1	10.8	9.3	4.6	-.708
경제/산업	8.6	1.8	6.2	13.5	12.4	12.2	.676
범죄/법원	9.5	12.3	8.2	8.1	9.3	12.2	.125
사건/사고	10.0	6.4	7.5	2.0	3.1	3.1	-.855**
재난	0	4.5	1.4	0.7	0	0	-.432
건강/복지	1.4	1.4	3.4	2.0	4.7	9.2	.848**
오락/스포츠	3.2	0.9	1.4	0.7	2.3	4.6	.373
날씨	4.5	1.8	0	1.4	0.8	0.8	-.685
과학	2.3	0.5	0.7	0	5.4	2.3	.378
환경/주택	1.4	1.4	3.4	2.0	3.9	2.3	.544
교육	0.5	1.9	3.4	2.4	2.2	4.3	.775*
빈곤	0	0	0	0	1.6	0.9	.393
노동/노사	0.9	3.2	1.4	1.4	1.6	0	-.474
소수자	0.9	2.7	2.1	2.0	2.3	0.8	-.124
사회갈등	3.2	1.8	6.8	4.7	0	1.5	-.349
기타	19.5	17.7	18.5	20.9	20.2	16.0	-.227

N = 996. * p < .10 ** p < .05.

<그림 1> 뉴스 토픽의 다양성에 관한 지난 50년간의 HHI 색인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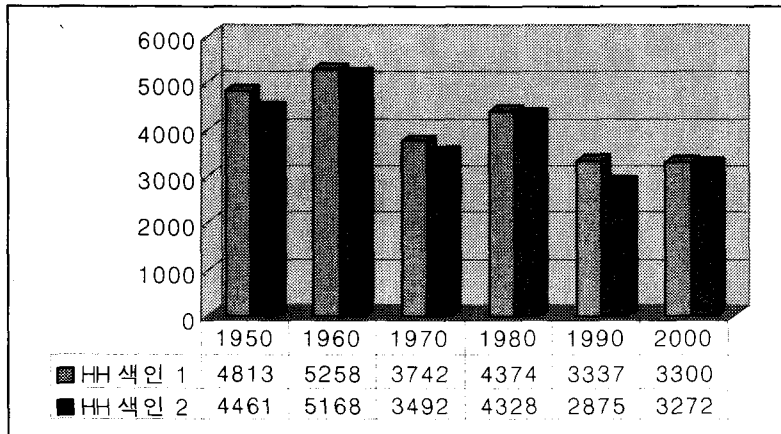
소수점 이하는 모두 생략했음.

N = 6, HHI: $r = -.004$, $p = .994$ (HHI 지수가 낮을수록 토픽의 분포가 고를을 의미함)

2) 정보원의 다양성

두 번째 조사 항목인 정보원에 대한 내용 분석은 6개 장르인 ‘정부기관’, ‘산업체’, ‘비영리 공공시설 및 사설 기구’, ‘개인’, ‘기자’, ‘기타’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통계 분석은 정보원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한 ‘정부기관’ 등 5개의 다양성을 측정한 HH 색인 1과 ‘기타’를 포함한 HH 색인 2 등으로 각각 분류해 실시해 보았다. 이는 뉴스 토픽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정보원의 경우, 기타 항목의 포함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HH 색인 1과 HH 색인 2 모두 1950년대에 비해 20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를 이용, 연도별 비율을 다시 조사해 보았다.

<그림 2> 정보원의 다양성에 관한 지난 50년간의 HH 색인값



결과는 HH 색인 1과 HH 색인 2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타’ 까지를 포함하는 HH 색인 1의 경우, 스피어맨 로우는 -.600으로 $p = .208$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를 제외한 HH 색인 2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Spearman's $r_{bo} = -.829$, $p = .042$). 이와 함께, 정부에서 나온 정보원에 대한 기사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이 검증됐다. 즉, 정부 및 정치에 대한 미 신문의 정보원 의존도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 언론의 정보 이용 의존도가 전통적으로 높다는 학계의 비판과 달리, 적어도 10년 단위의 1면 기사 분석 결과, 언론 기자들의 취재원이 점차 정부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를 이용, 연도별 비율을 다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앞서 실시한 HH 2 색인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출입처로부터의 취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pearman's $r_{bo} = -.829$, $p = .042$).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은 정부 출입처에 대한 비중의 축소와 함께, 산업체발 취재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된 <표 1>에 따르면, 신문 3사의 1면 뉴스 지면에서 차지하는 산업체발 취재원의 비중이 1980년 5.6%에서 1990년 5.3%를 거쳐 2000년 8.7%로, 1950년의 2.3%, 1960년의 0%, 1970년의 1.4%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는 $.771$, $p = .072$ 로 95%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영리 공공시설 및 사설 기구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전(1950년 3.6%, 1960년 8.3%, 1970년 6.8%)에 비해 1980년 이후(1980년 5.6%, 1990년 2.1%, 2000년 2.2%)의 수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취재의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하거나 명백한 취재원 없이 기자 자신의 현장 취재 등으로 기사가 전개된 경우는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있으나, 연도와 연계된 이들의 스피어맨 로우는 통계적으로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난 50년간 1면에 나타난 취재원의 종류 및 기사 비율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r	p
정부	66.5(%)	77.7	56.8	65.6	50.5	56.5	-.873	.023*
기업	2.3	0	1.4	5.6	5.3	8.7	.838	.037*
공공	3.6	8.3	6.8	5.6	2.1	2.2	-.284	.585
개인	4.5	1.9	5.5	4.8	9.5	6.5	.542	.266
기자	5.0	5.7	13.7	12.0	5.3	10.9	.726	.103
기타	18.1	6.4	15.8	6.4	27.4	15.2	-.301	.562

N=996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1면 기사가 뉴스 토픽 선정 및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의 보도 행태를 견지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시도해 보았다. 사실, 본 논문은 미국의 신문이 규범적인 측면에 있어 20세기 후반부에 얼마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왔는가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씨앗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 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이 작목(作木)의 주된 거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기에 앞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개 신문사의 뉴스 기사가 미국 전체의 신문과 언론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년마다 설정된 6개년의 기준 년도와 각각 해당 년도의 1주일 치에 해당하는 신문의 표본 분량도 양적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약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3대 유력 일간지의 1면 뉴스가 보여준 기사 선별 및 취재 경로의 변천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언론 보도에 있어 대 정부 및 대 정치권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취재원에 대한 전통적인 학계의 시각에서 본

다면,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제껏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중복적으로 정부 및 워싱턴 정가에 대한 미 언론의 높은 의존도를 확인했을 뿐, 이 같은 경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예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는 어떠한 요인들을 들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들로 조심스럽게 꼽고자 한다. 우선, 갈수록 서로간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미 정부와 언론사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위버(Weaver, 1975)에 따르면, 미 언론과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적당한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전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존의 애정 관계가 애증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인 패터슨(Patterson, 1993) 역시 시대를 거듭할수록, 정치권에 대한 언론의 냉대와 냉소, 그리고 비판적 편견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진보적 언론학자인 할린(Hallin, 1996) 또한, 1990년대 이후 냉전 구도의 와해 속에 전통적으로 정부와 국민, 언론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공감대가 붕괴되면서, 언론이 이전과는 다른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이 보다 주관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이슈를 분석하며, 갈수록 상업적인 뉴스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스 토픽에 있어 점차 인기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 관련 기사는 취재 기자가 경제 및 산업체의 정보원을 과거에 비해 많이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현상이라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 신문에서 나타나는 정보원 분포를 보면, 정부와 정치 부문을 제외한 여타 정보원 분야가 고른 비율로 증가하기보다 경제/산업체 부분이 약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정보원 유형에 있어 비영리 공공시설/사설 기구 및 개인 등에 대해 여전히 낮은 뉴스 의존도는 기자와 언론사의 전통적인 취재 대상이 정치 일변도에서 경제로 확산됐을 뿐, 그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논의를 조심스럽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스 토픽의 다양성과 관련한 연대기적 분석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는가? 소개됐던 <표 1>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듯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적어도 뉴스 토픽에 있어 정치 기사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왔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전과 달리 1980년대 이후의 경제 관련 기사 역시 그 빈도수에 있어 정치에 이어 2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눈에 띄는 몇몇의 변화를 제외하곤, 지난 50년간 유사한 주제,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이 신문 지상을 장식해 왔다는 분석 결과는 뉴스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선별에 있어서도 그다지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논의를 자아낸다. 물론, 1980년대를 전후로 미국 사회가 격동의 70년대보다 훨씬 안정을 되찾은 것이, 노동, 사회 갈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사 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유추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지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시 빈곤, 장애인 및 소수인 문제 등과 같은 비인기 주제들은 사회의 여러 그림들을 고루 보여줘야 하는 규범적 언론의 기준에서 볼 때, 미 언론에서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적어도, 사회적 책임 이론에 바탕을 둔 규범적 시각에서 볼 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난 50년간 뉴욕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3대 유력 일간지의 1면 기사에 나타난 미 언론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보도 행태를 견지해 왔다. 이는 연대기적으로 추적된 미 신문의 뉴스 가치 변화가 양날의 검처럼 여러 면에서 서로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뉴스 수집에 있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인용은 정보원의 독점 완화라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 출구로부터의 취재 완화가 동시에 여타 유형의 정보원 이용으로 고르게 분포되기보다 경제/산업체라는 대체 출입처로 전이되는 듯한 경향은 본고에서 ‘출입처 및 정보원의 다양화’라는 결론을 쉽사리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와 대중들의 집중하는 관심이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처럼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해

석 때문이다. 출입처 유형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분야의 두각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통제되고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신문의 뉴스 토픽 분포는 최근의 몇몇 방송 연구가 밝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뉴스 주제의 취재에서 벗어나 다소 폭넓은 뉴스 대상들을 1면에 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인기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언론이 과거의 뉴스 제작 방식에서 탈피, 이들 비인기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토픽들로 기존의 인기 토픽들을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바크와 로젠스티엘(Kovach & Rosenstiel, 2001/2003)이 그들의 저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에서 으뜸으로 꼽았던 언론의 첫째 목적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p.27). 지난 50년간의 미 언론에 대한 보도 행태를 다양성의 기준에서 재단한다면, 과연 미 언론은 어느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했을까? 언론은 결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만으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했다고 결론지어서는 곤란하다. 사회 곳곳의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둡고 칙칙한 구석을 살살이 비춰주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경보를 끊임없이 울려주는 기능이 21세기 언론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미 언론 보도의 연대기적 변화가 한국의 언론에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던 정보원과 토픽 분포 등에 관한 미국의 여러 선행 연구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보다 더욱 격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기자 취재 경로 및 토픽 분포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한국 언론 보도의 역사적인 진행 및 변천 경로를 추적함에 있어 더욱 선명하고 의미심장한 등고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 문헌

- 배현석 (2002). 지역 TV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공중파 TV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46권 4호, 141~176.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정보원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18~242.
- 한진만·설진아 (2001). 텔레비전 뉴스의 연성화에 관한 연구: KBS 1, MBC, SBS의 주시청시간대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333~366.
- Alezander, V. D. (1995). *Public Television for Sale: Media, the Market, and the Public Sphere* by Willam Hoynes. *Contemporary Sociology*.
- Altschull,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양승목 역. (1996). 『현대언론 사상사: 밀턴에서 맥루한까지』. 나남.
- Bae, H. (2000). Product Differentiation in National TV Newscasts: a Comparison of the Cable All-News Networks and the Broadcast Network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 62~77.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 27~53.
- Berkowitz, D. (1987). TV News Sources and News Channels: A Study in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4(summer/Autumn), 508~513.
- _____. (1990). Refining the Gatekeeping Metaphor for Local TV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4, 55~68.
- Berkowitz, D. & J. V. Terkeurst (1999). Community as Interpretive Community: Rethinking the Journalist-Source Relatio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125~136.
- Brown, J. D., Bybee, C. R., Wearden, S. T. & Straughan, D. M. (1987).

- Invisible Power: News Sources and the Limits of Diversity. *Journalism Quarterly*, 64, 45~54.
- Carroll, R. L., Tuggle, C. A., McCollum, J. F., Mitrook, M. A., Arlington, K. J., Hoerner, Jr., J. M. (1997). Consonance in Local Television News Program Content: An Examination of Intermarket Divers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1, 132~144.
-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 General Report on Mass Commun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lbertson, H. M. (1981). Reporters and Editors—Some Differences in Perspective. *Newspaper Research Journal*, 2, 17~27.
- Deutschmann, P. J. (1959). *News Page Content of Twelve Metropolitan Dailies*. Cincinnati, OH: Scripps-Howard Research.
- Folkerts, J., & Teeter, D. L. Jr. (1994). *Voices of a Nation: a History of Mass Media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College.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 Hallin, D. C. (1996). Commercialism and Professionalism in the American News Media. in J. Curran and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Arnold, 243~62.
- Hansen, K. A. (1991). Source Diversity and Newspaper Enterprise Journalism. *Journalism Quarterly* 68, (autumn), 474~82.
- Hart, J. R. (1976). Horatio Alger in the Newsroom: Social Origins of American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53, 14~20.
- Haws, D. (1991). Minorities in the Newsroom and Community: A Comparison. *Journalism Quarterly*, 68, 764~771.
- Herman, E. S. (1985). Diversity of News: 'Marginalizing' the Opposi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5, 143~152.
- Herman, E. S., & Chomsky, N. (1988).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 Hess, S. (1981). *The Washington Reporter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Hudson, T. J. (1992). Consonance in Depiction of Violent Material in Television News. *Journalism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6(4), 411~425.
- Janowitz, M.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52, 618~26, 662.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종욱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 Lacy, S. & Coulson, D. C. (2000). Comparative Case Study: Newspaper Source Use on the Environmental Beat. *Newspaper Research Journal*, 21, 1, 13~25.
- Lambeth, E. B. (1998). Public Journalism as a Democratic Practice. in E. B. Lambeth, P.E. Meyer & E. Thorson (Eds.), *Assessing Public Journalism*,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5~35.
- Li, X., & R. Izard (2003). 9/11 Attack Coverage Reveals Similarities, Differenc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4(1), 204~219.
- Lindeborg, R. A. & Stone, G. C. (1975). News Values as Reflected in Newspaper Content Found Stables from 1950 through 1970. *News Research for Better Newspapers*, 7, 41~5.
- Martin, S. E. (1988). Proximity of Event as a Factor in Selection of News Sources. *Journalism Quarterly*, 65 (winter), 986~89, 1043.
- McChesney, R. W. (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Quail, D. (1994).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3th edition. London: Newbury Park.
- McClellan, S. (1997, August 18). Crime Spree on Networks News. *Broadcasting & Cable*, 28, 30.
- Meyer, P. (1973). *Precision Journalism: a Reporter's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Metho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NAA (2004). "2004 Facts about Newspapers: a Statistical Summary of the Newspaper Industry," <<http://www.naa.org/info/facts04/circulation->

daily.html>

- Proress, D. L., Cook, F. L., Doppelt, J. C., Ettema, J. S., Gordon, M. T.,
Leff, D. R. & Miller, P. (1991). *The Journalism of Outrage: Investigative Reporting and Agenda Building in America*. New York: Guilford.
-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196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iffe, D., Ellis, B., Rogers, M. K., Van Ommeren, R. L. & Woodman, K. A. (1986). Gatekeeping and the Network News Mix. *Journalism Quarterly*, 63(2), 315~321.
- Rosenstiel, T., Gottlieb, C. & Brady, L. A. (2000). Time for Peril for TV News: Quality Sells, but Commitment and Viewership Continue to Erod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1).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White Plains, NY: Longman.
- Schudson, M. (1982). *The Politics of Narrative Form: The Emergence of News Conventions in Print and Television*. *Daedalus* 111, 97~112.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MA: D.C. Heath.
- Sparks, C. (1995). The Survival of the State in British Broadcas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5(4), 140~159.
- Steele, C. A. & K. G. Barnhurst (1996). The Journalism of Opinion: Network News Coverage of U.S. Presidential Campaigns, 1968~1988.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3(3), 187~199.
- Stempel, G. H. (1983). Gatekeeping: the Mix of Topics and the Selection of Stories. *Journalism Quarterly*, 62(4), 791~796.
- _____ (1985). Gatekeeping: The Mix of Topics and the Selection of Stories, *Journalism Quarterly*, 63, 791~96.
- Valenzuela, M. (1999). Expanding Coverage of Diversity beyond Ethnicity and Ra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or*, 54, 2.
- Voakes, P. S., Kapfer, J., Kurpius, D. & Chern, D. S. (1996). Diversity in the New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3, 582~593.

- Weaver, P. H. (1975). The New Journalism and the Old. In J. C. Merrill and Ralph D. Barney (Eds.), *Ethics and the Press*. New York: Hastings House, 89~107.
- Weaver, D., & Wilhoit, G. C. (1992). *The American Journalist: A Portrait of U.S. News People and Their Work*(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hitney, D. C., Fritzier, M., Jones, S., Mazzarella, S. & Rakow, L. (1989). Geographic and Source Biases in Network Television News 1982~1984.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3, 2, 159~174.

(최초 투고 2005. 6. 1, 최종원고 제출일 2005. 7. 6)

Topic and Source Diversity of the Front Page in the New York Times, Chicago Tribune and the Los Angeles Times from 1950 to 2000

Hoon Sh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versity of news topic and source of the New York Times, Chicago Tribune, and the Los Angeles Time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probing the conventional traits of the contemporary press, the researcher traced the changing patterns and trends of news values in terms of news-gathering routine in order to evaluate the journalistic role conception 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Findings indicated that the American press as a neutral transmitter has been consistently violated by source and topic bias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last five decades. The data, however, revealed the evident shift of the contemporary press from the heavy reliance of official source to the business/economic source. In addition, news topics such as business, health, and education have replaced the conventional popular topics such as crime and accidents. By contrast, it was revealed that the unconventional topics such as poverty, labor and minority still fail to receive the large attention from the target papers.

Keywords: d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source, topic